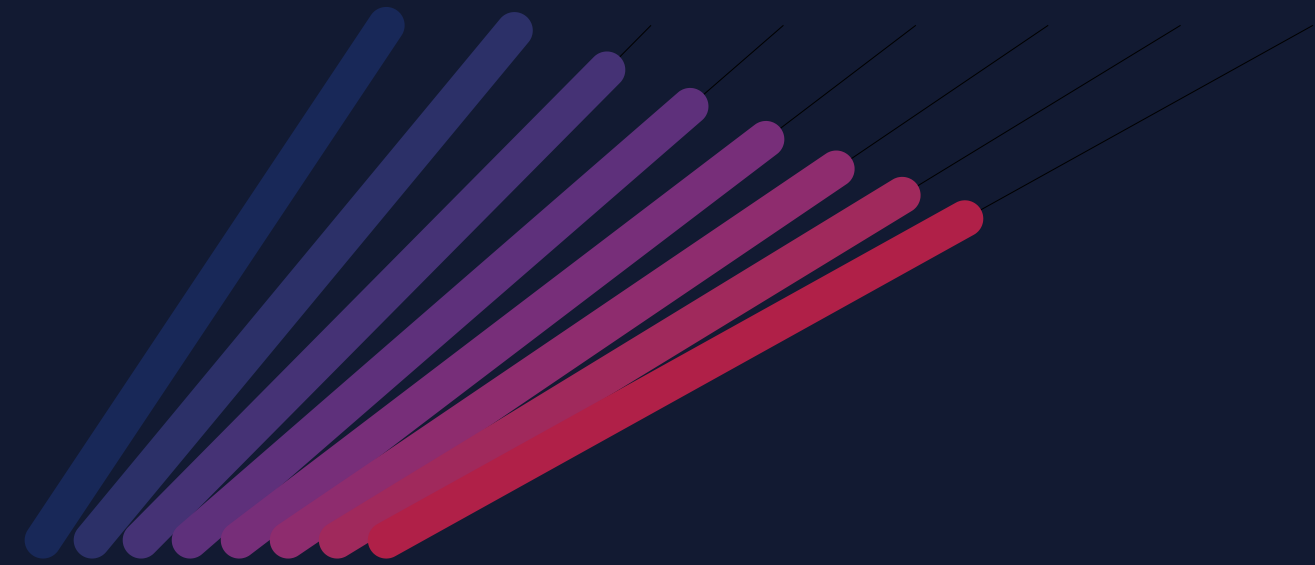




AX 디자인팩토리 부트캠프

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 · 온라인 과정

AI는 왜 편향되나 — 데이터가 사람을 닮는다

3강 · AI는 왜 편향되나 — 데이터가 사람을 닮는다

과목	차시	길이
AI 활용 윤리와 가이드라인	3 / 4	25분

도입

오늘 정하는 것

이 편이 끝나면 한 문장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Q AI가 왜 한쪽으로 치우친 답을 내놓는가

답을 못 하면 AI가 내놓은 요약은 분모 확인 없이 그대로 옮기게 됩니다.

도입

이 편이 끝나면 보는 것

「편향 점검표」－ 이 데이터가 누구를 빼놓았나 · 출력이 누구를 평균으로 세우나 · 내가 확인한 것, 세 칸이 다 채워진 완성본 (재구성)

이 편 시연 설계(편향 점검표 세 칸)－ 집필자 구성 · 확인일 2026-09-06

데이터에 있는 사람만 닮는다

이론

6분

소재 없이 - 편향이 생기는 세 자리

AI는 데이터에 있는 사람만 닮 는다. 재료에 없는 사람은 출력에도 없다

평균 인물을 만들 때의 함정과 뿌리가 같다는 것을 짚습니다.

편향의 세 자리

- 1 재료가 누구를 빼놓았나 — 무응답·미등록
- 2 출력이 누구를 「보통」 으로 세우나 — 응답자를 전체처럼
- 3 그것을 사실로 옮긴 사람 — 분모를 따지지 않고 옮겨 적기

이론 · 다른 예

동창회 설문으로 평균 연봉을 말한다면

답한 사람

평균에 들어간다

- 연봉을 자랑삼아 답한 사람
- 그 답만 평균에 남는다

답하지 않은 사람

평균에서 사라진다

- 답을 꺼린 사람
- 어떤 흔적도 남기지 못한다

요약 한 문장의 분모를 확인한다

시연

13분

999 무응답에서 시작해 분모를 되묻는다

설문 파일을 연다 (재구성)

31,635행 × 22열 설문 파일을 열어 「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」 열을 확인한다 - 999(무응답 코드)가 17,638행, 55.8%다

author-c/probe-dj/3b/data/survey.csv(원자료 재계산 대조) · assets/data/daejeon/README.md 「더러운 원천 실측」 · 확인일 2026-09-06

"요약해 줘"의 함정 (재구성)



AI 채팅창에 "이 설문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요약해 줘"라고 입력하면 "대부분의 소상공인은..."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온다 - 분모를 되물으면 AI는 잘못 「전체 응답자」라고 답한다

이 편 시연 설계(가상 함정) · 확인일 2026-09-06

세 칸 채우기 (재구성)

칸	내용
빼놓은 사람	무응답 55.8%
평균으로 세운 사람	응답자 44.2%
내가 확인한 것	문장마다 분모를 적는다

이 편 시연 설계(편향 점검표 세 칸) · 확인일 2026-09-06

없는 사람은 내가 찾는다

정리

AI는 데이터에 있는 사람을 닮습니 다. 없는 사람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.

다음 차시

밝히는 법 — AI 사용 표기와 조직의 규정

배웠는지 재는 질문 — 이 요약의 분모는 누구입니까?

